

정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-세출 불일치 보완을 위해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1.6. 내일신문은 「정부 작년 223조 차입... 56조 세수펄크 때보다 규모 커」 기사에서,
 -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돈은 모두 222.8조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이며,
 - 또한, 정부가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으로 우선 자금을 조달하도록 규정한 국고금관리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재정증권 발행 및 한은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시기 간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국고금관리법*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* 「국고금관리법」 제32조 제①항 :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.....
재정증권의 발행,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...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.

- 기사에서 언급된 222.8조원은 차입누계액이며, 정부는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국회에서 설정한 일시차입 한도* 내에서 일시차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.

* '24년 예산총칙 상 일시차입 한도 : 통합계정 40조원, 공자기금 8조원, 양특 2조원

- 한편, 정부는 한은 차입금 연간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자금조달시 재정증권 발행을 한은 차입에 우선하도록 한 국고금관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국고국	책임자	과장	류중재 (044-215-5110)
	국고과	담당자	사무관	전형용 (jeonzzong@korea.kr)

